제10강 칸트: 감성의 형식인 시간과 상상력의 시간 도식 Ⅱ

(1~2교시)

2. 인식 방식에서의 시간의 표현

칸트는 시간을 인식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면서 순수하고 아프리오리한 즉 경험에 의거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타고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과정에서 맨 처음 생겨나는 감각적인 현출 다양에서부터 개념적인 인식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시간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식 능력조차 도대체 시간에 걸려들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식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을 그저 감성의 선험적인 형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칸트의 시간론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을 위해 동원되는 지성적인 선험적 범주들이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인식 과정에서 힘을 발휘할 때 어떻게 시간화 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칸트에 따르면 지성이 지닌 경험적 개념들뿐만 아니라 선험적 개념들 즉 범주 개념들은 감성에서 형성되는 감각적인 직관과 워낙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양자 사이에 결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가 결합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인식도 불가능하고 아울러 인식 대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결합하는 데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구상력입니다. 구상력은 어떻게 양자를 결합할까요?
구상력은 도식(圖式 Schema)을 통해 감각적 직관과 개념을 연결합니다. 도식은 형태와 다릅니다. 형태는 개별적이지만 도식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다리가 네 개 달린 모든 것'에 대한 도식은 그 구체적인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다리 네 개'의 일반적인 그 무엇이 감각적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감각이란 순전히 내감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라는 개념을 실제 돌아다니는 어떤 개를 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개 일반의 도식을 내적으로 떠올리는 구상력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지성의 개념들인 범주들이 감각적 직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이를 칸트는 도식론(Schematismus)이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소광희 선생님이 쓰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도식론은 "순수 오성 개념이 현상 일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룬다. 이것은 "한 편에서는 범주와 동종적이고 다른 편에서는 현상과 동종적이어서 전자를 후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삼자", 즉 일면으로는 지성적이고 타면에서는 감성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시간이라는 것이다. 시간은 "일면으로는 보편적이고 아프리오리한 원칙에 의거하는 한 범주와 동종이고, 타면으로는 다양의 모든 경험적 표상에 포함되어 있는 한 현상과 동종"이기 때문에 도식론에서 시간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책 A 138 / B 177f. 참조.(소광희, 354쪽 주 33)

www.artnstudy.com

소광희 선생님은 제가 지성이라 한 것을 오성이라 번역하고 현출이라 한 것을 현상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 중 앞에서 소광희 선생님이 인용하고 있는 칸트의 말에 이어 칸트는 "이러한 매개적인 표상은 순수하고(경험적인 모든 것이 없고) 한편으로는 지성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선험적 도식이다."(A. 138)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선험적 도식'(das transzendentale Schema)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험적인 개념이란 본래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현출 다양과 그 통일된 것인 감각적 직관의 내용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선험적 개념 역시 개념인 한 이것들과 이질적임에 틀림없고 그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각적이면서 지성적인 제 3의 무엇 즉 선험적 도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선험적 개념들 즉 지성의 순수하고 형식적인 개념들을 크게 양, 질, 관계, 양상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에 속한 것으로 다시 세 가지씩을 할당합니다. 양에 대해서는 통일성, 다수성, 전체성을, 질에 대해서는 실재성, 부정성, 한정성을, 관계에 대해서는 종속성과 지속성(실체와 우유성), 인과성과 의존성(원인과 결과), 공동성(능동과 수동의 상호작용), 양상에 대해서는 가능성-불가능성, 현존-비현존, 필연성-우연성을 할당합니다.

이들 12가지 범주들에 대한 각각의 선험적 범주들을 다 챙길 겨를은 없습니다. 우선 양에 관해 칸트가 제시하는 선험적 도식은 수(Zahl)입니다.

"지성의 한 개념인 양의 순수 도식은 수다. 수는 하나에서 하나를 계속 더하는 것을 총괄하는 표상이다. 따라서 수는 다름 아니라, 내가 시간 자체를 직관의 각지에서 산출함을 통해 이루는 동종의 직관 일반의 다양들을 종합의 통일성이다."(A. 142-3)

그리고 질에 관한 선험적 도식은 도(度, Grad)입니다.

"모든 감각은 도 또는 크기를 갖는다. 그것을 통해 감각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동일한 표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동일한 시간 즉 내감을 더 많게 혹은 더 적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감각이 무(零=0)로 중지될 때까지. (…) 실재성의 도식은 어떤 것이 시간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시간에서 동일한 것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산출되는 것이다."(A. 143)

관계에 대해서는 예컨대 실체의 도식은 시간에서 실재적인 것의 완고함(관성)을, 원인과 결과의 도식은 다양의 계속(계기 Sukzession)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양상에 대해서는 예컨대 가능성의 도식은 다른 표상들의 종합이 시간 일반의 조건들과 합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무튼 칸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식들이란 바로 규칙들에 따른 아프리오리한 시간규정들이다. 시간규정들은 범주들의 순서에 따라 시간계열(Zeitreihe), 시간내용(Zeitinhalt), 시간순서(Zeitordnung) 끝으로 시간총괄(Zeitinbegriff)로 전개된다."(A. 145) 양은 시간계열, 질은 시간내용, 관계는 시간순서, 양상은 시간총괄이라는 시간규정들로 전개된다는 것인데요. 그냥 들어서는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지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지성의 원칙론에서 다시 세세하게 논의됩니다.

www.artnstudy.com

시간계열은 직관의 공리(Axiome der Anschauung)라는 원칙으로 재론되고, 시간내용은 지각의 예료(Antizipationen der Wahrnehmung)를 원칙으로 재론되며, 시간순서는 경험의 유추(Analogien der Erfahrung)라는 원칙으로 재론되고, 그리고 시간총괄은 경험적 사유 일반의 요청(Postulate des empirischen Denkens überhaupt)라는 원칙으로 재론됩니다. 그런데 칸트는 앞의 두 원칙은 수학적 원칙이라 부르고, 뒤의 두 원칙은 동력학적 원칙이라 부릅니다.(소광희, 355쪽 참조.)

직관의 공리의 원칙은 "모든 직관은 외연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각의 예료의 원칙은 "모든 현상에 있어서 감각의 대상인 실재적인 것은 내포량 즉 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의 유추의 원칙은 "경험은 지각의 필연적 결합이라는 표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적 사유 일반의 요청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1) 경험의 형식적 조건(직관과 개념에 관한)과 일치하는 것은 가능적이다, 2) 경험의 질료적 조건(감각)과 관련하는 것은 현실적이다, 3) 경험의 일반적 조건[유추의 원칙]에 의해 현실적인 것과의 관련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즉 필연적으로 실재한다.

복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간의 인식의 모든 일들에는 시간 규정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규정들이란 결국 시간의 계기성과 동시성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속성입니다. 대상의 실체성이 성립하려면 시간의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상의 실재성이 성립하려면 시간이 계기하는 가운데 그 대상의 감각적인 농도가 충만하게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건들 간의 인과가 성립하려면 사건을 이루는 현출 다양이 하나의 규칙 하에 놓이면서 연속해서 계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상의 현실성이 성립하려면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대상이 현존해야 한다는 것 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칸트는 구성주의 철학 즉 인간의 인식 능력에 의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즉 현상계가 구성된다고 하는 인식론을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에서 구성되는 세계는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구성되는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아프리오리한 각종 장치들을 설정 내지는 발견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세계가 구성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인 상대적인 사적인 세계를 철저히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일관된 균일성입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시공이 물체의 질량과 에너지의 정도에 따라 휨이 달라진다고 한 것처럼, 개개인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 시간이 빨리 흐르거나 늦게 흐른다고 한다면 칸트의 객관적인 세계는 결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결국 수학적인 방식으로 동력학적인 즉 물리적인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 역시 아프리오리한 시간의 일관된 균일성에 있습니다. 설사 시간이 감성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 일관된 균일성에 의해 계기(繼起)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간의 형식이 대상 구성과 대상 간의 관계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객관적 시간 역시 성립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시간론에서는 이른바 예술적 시간이나 문학적 시간처럼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이나 의식 상태에 의거해 그 질을 달리하는 시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칸트가 논구하고 있는

www.artnstudy.com

시간은 감각을 형식적으로 균일하게 규정할 뿐 그 자체로는 철저히 무감각한 것입니다. 칸트에서 시간 자체의 질을 따진다거나 시간 자체의 두께를 따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입니다. 그것은 칸트에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가 어떻게 생겨나며 그것들의 결합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니체 식의 순간 속의 영원의 응축 운운 하는 것은 칸트의 시간론에서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칸트의 시간론은 뉴턴의 물리학적인 균일한 1차원적이면서 무한하고 절대적인 수평적 시간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칸트의 시간론이 남긴 위대한 업적은 시간이 인간의 인식 과정에 철저히 관여하고 있음을, 과장해서 말하면 인간의 객관적인 인식은 시간의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점에 있습니다.

www.artnstudy.com